2024/2025
전라남도 스토리 공모전 수상작
DIRECTORY BOOK

* 수상작 관련 문의는 진흥원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061-339-6924 | heejae@jcia.or.kr

CONTENTS

전라남도스토리 공모전 수상작

2025

탐정 홍임, 다산의 딸
우소연

공무원인데, 설화 속으로 외근 나왔습니다
변기돈

재 란: 再 亂
최형규

소설 속 최애를 위한 생존 가이드
이하진

한식으로 시작하는 슬기로운 빙의생활
이하영

2024

사랑이잠든시간
신재아

곡성, 극장 넘어 신세계
김향화 / 이형석

홍어장수 문선달의 파란만장 일대기
신학수

파산극장
이동윤

상사화의 연가
박정학

류, 흘러온 남자
전세영

조선에서 온 그녀
노홍식

2024년
전라남도 스토리
공모전 수상작

사 랑 이 잠 든 시 간 신 재 아

곡 성 , 극 장 넘 어 신 세 계 김 향 화 이 형 석

상 사 화 의 연 가 박 정 학

홍어장수문선달의파란만장표류기 신 학 수

파 산 극 장 이 동 윤

사랑이 잠든 시간

작가소개 신재아

2022 대한민국스토리공모대전 최우수상 '낭만별곡'
2024 전남스토리공모전 우수상 '사랑이잠든시간'

분야/장르

역사 / 멜로

주요 내용

바닷속에 잠들어있던 고려청자가 발견되며 시작되는,
1천년 전 고려 제일 사기장과 상인의 사랑이야기

IP확장 목표

국내방송사 / 글로벌 OTT와 드라마 제작

로그라인

천 년 전, 땅끝마을 탐진에서 피어난 고려 제일 사기장과 상인의 신분초월 사랑이야기!

줄거리

태안 앞바다에서 2만여 점이 넘는 청자를 실은 보물선이 발견된다. 보물선의 침몰시기는 지금으로부터 900여 년 전인 1136년 고려 인종. 그리고 보물선의 출발지는 당시 탐진(지금의 강진), 목적지는 개경이었음이 밝혀진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30대 고려 남성의 유골로 추정되는 뼈가 함께 발굴되면서 이 고려 남성의 사연이 궁금해지는데...

1122년, 탐진의 가장 큰 가마인 대구소(지금의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황제에게 바칠 청자를 구하기 위해 탐진에 도착한 모란상단 행수 결은 율찬이 만든 청자에 끌림을 느끼고 자신에게 팔 것을 제안하지만 거절 당한다. 며칠 후, 상단이 돌아간 줄 알고 다시 작업을 하러 도예실에 들어온 율찬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결을 보고 놀라는데...

결은 율찬에게 그릇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며 율찬에게 설렘과 끌림을 느낀다. 해(고려 17대 황제 인종)는 모란상단 행수인 결의 입궐을 명하고, 결은 해 앞에서 그동안 율찬에게 배운 그릇에 대한 지식들을 전한다. 해의 명령으로 20년만에 탐진을 벗어나 개경으로 향하는 율찬. 하지만 그 사이에 탐진에는 해적이 쳐들어오고, 율찬의 아버지는 마을을 지키다가 죽는다. 그 소식에 율찬은 황망히 탐진으로 돌아오는데...

폐허가 되어버린 탐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율찬은 불타버린 집들 속에서도 온전히 남은 그릇들을 보며, 마을사람들과 함께 가마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결은 율찬을 위로하기 위해 탐진에 방문하는데...

율찬은 삶의 터전부터 신분까지, 모든게 다르다며 속마음과 다르게 선을 긋는다. 결은 상처를 받은 채 떠나고, 율찬은 뒤늦게 결을 쫓아간다. 산속에서의 하룻밤을 보내며 마음을 확인한 두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 속에 각자의 자리로 보내준다. 하지만 재벌중이던 가마 속의 작품들이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고, 율찬은 가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등장인물 소개

1. 이율찬(불꽃같은 남자 燦)

- 신분 및 직업 : 양민, 탐진 대구소의 사기장
- 좌우명 : 지름길보다는 正道를 가자!

기억이란 걸 하게 된 5살 무렵,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다. 가마속 불꽃을 보고있으니 추위도 사라지고, 배고픔도 잊은 채, 마냥 불꽃이 일렁이던 모습이 신기해 꼼짝없이 앉아 하루를 보냈었다. 그날 이후, 눈동자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불꽃이 담겼고, 청자(靑瓷)가 '운명'인걸 알게 되었다.
이제껏 탐진을 떠나본 적도 없지만, 탐진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가마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건, 율찬이 며칠째 깨어있다는 소리고, 가마에서 연기가 꺼졌다는 건, 율찬이 자고있다는 소리였다. 그저 가마 속의 불꽃을 보면 어릴 적 그 기억처럼 마음이 편해지고, '오늘도 좋은 청자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 속으로 불꽃이 타오를 뿐이었는데...청자말고 율찬의 마음 속 불꽃을 피우는게 하나 더 생겼다...

2. 홍결(모란같은 여자 潔)

- 신분 및 직업 : 호족, 모란 상단의 행수
- 좌우명 : 꽃길만 걷기보다는 길을 개척하자!

초야도 치르기 전에 남편상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결. 어려서부터 대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던 상단 사람들을 지켜보며 하루를 시작한 결은, 재가도, 전국유람도 아닌, '상단 일을 배우고 싶다'고 폭탄선언을 한다. 상단의 행수가 되어 새 황제께 진상할 다기(茶器)를 찾아 탐진으로 향하고, 그 곳에서 그를 보았다...

3. 왕해(나무같은 남자 楷)

- 신분 및 직업 : 고려 17대 황제
- 좌우명 : 외유내강할 순간과 외강내유할 순간을 분별하자!

추적추적 비가오던 밤. 외할아버지(이자겸)는 손주에게 부친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주지않고, 황제로 만드셨다. 그리고 말 그대로 '허수아비 황제'가 되었다. 결을 처음 만난건 다시(茶時) 덕분이었다. 신하들 앞에서 억지웃음을 짓는게 힘들기는 했지만, 은은한 빛깔의 다기(茶器)와 은은한 향기의 차가 주는 위로가 있어서 버틸만했다. 그날 이후, 결은 고려곳곳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녀 덕분에 율찬도 만날 수 있었다...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K-컬처 시대, 새로운 멜로:** 글로벌 K콘텐츠에서 그동안 다뤄진 적 없던 '고려'와 '청자'를 소재로 '새로운 멜로' 드라마 제작, 유통하여 글로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② **IP 상품화·관광 연계 확장성:** 주요 소재인 청자 '굿즈'와, 드라마 속 주요 배경을 '체험형 관광지'로 만들어, 콘텐츠 확장에 용이하다.

2024년 우수상

곡성, 극장 넘어 신세계

작가소개

- 김향화: 장편 〈마이 제너레이션〉 외 다수의 독립 장·단편 영화 프로듀서 활동
- 이형석: 독립 영화 감독이자 프로듀서 부산국제영화제 등 다수 영화제 수상

분야/장르

역사 휴먼 드라마

주요 내용

전남 곡성에 극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애환이 영화처럼 펼쳐진다. 그리고, 곡성 극장의 문을 열면, 삶과 죽음, 희망 그리고 꿈으로 가득 찬 신세계를 마주하게 된다.

IP확장 목표

연극, 드라마, 웹툰 확장/ 지역 콘텐츠 사업 연계

로그라인

전남 곡성에 극장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애환이 영화처럼 펼쳐진다.

줄거리

1957년 전라도 곡성읍.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때, 변사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졌던 무성 영화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유성영화를 맞이하게 된다. 변사를 따라다니던 어린 정화와 영석도 어엿한 성인이 되어 정화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영석은 곡성사진관의 조수로 성장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곡성은 많이 변했지만, 이한수(정화의 아버지, 곡성 공보실 공무원)는 여전히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구닥다리 16mm 영사기로 가설극장 문화영화 순회상영을 다니고 있다.

그가 순회공연을 다니는 목표는 곡성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공보실은 정부의 선전물인 대한뉘우스를 더욱 강조하라는 압박을 가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낡아빠진 영사기가 고장이 난다. 정화와 영석은 실의에 바진 이한수를 대신해 광주로 가서 영사기를 수리해 오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한수는 공보실 몰래 한국영화 최후의 무성영화 〈검사와 선생님〉의 상영회를 강행한다.

이한수는 유명한 변사였지만 지금은 똥지게꾼으로 전락한 마달봉을 섭외하고, 침수된 마을회관 대신 고달국민학교의 운동장을 빌려 천막을 친다. 그렇게 이한수와 변사 마달봉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영화 상영회가 공보실장의 방해에도 성공리에 끝난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변사 마달봉은 죽음을 맞이하고 이한수는 군청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한수는 곡성에 극장을 세우기로 마음 먹고, 영석 아버지의 도움으로 35mm 영사기를 마련한다. 그렇게 곡성 유일의 극장인 〈곡성극장〉을 개관하게 된다.

곡성, 극장 넘어의 신세계를 선물하기 위해…

등장인물 소개

1. 이한수

젊은 시절부터 곡성 주민들을 위해 영화 상영 업무를 천직으로 믿으며 살아왔다. 군청 공보부 직원으로 한국전쟁 직후, 무성영화 시절부터 문화영화 위주로 상영을 하는 것에 불만이 많다. 광주와 같은 도시가 전라도권을 대표해서 신작 영화를 틀어주는 제도로 인해, 사골국 우리듯 같은 영화를 틀어줘서 곡성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갖고 있다. 더군다나 낡아 고장이 잦은 영사기 교체를 공보부 계장에게 요청하지만, 번번이 묵살 당하기 일쑤다. 언젠가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곡성에 근사한 극장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2. 이정화

한수의 외동딸로, 어린 시절 광주로 유학을 가서 교대 졸업 후 고향 곡성에 국민학교 선생님으로 부임한다. 곡성 사람들에게 영화 상영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아버지를 둔 덕에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보고 성장했으며, 따라서 아버지처럼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올곧은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아버지를 묵묵히 지지하고, 이해하는 여성이다.

3. 정영석

정화의 국민학교 친구로, 영정사진을 잘 찍기로 소문난 사진관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뒀다. 가업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정화 아버지 한수를 쫓아다니면서 영화를 트는 일에 더 흥미를 느낀다. 광주극장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극장 기도 주임과의 인연으로 영사기를 고치기까지 한다.

4. 마달봉

과거 한때 곡성에서 가장 유명했던 변사. 무성영화가 성행하던 시절. 마을 사람들에게 영화 해설(길잡이)을 해주던 변사로, 유성영화의 등장과 함께, 곡성 변두리에서 똥기지 일을 하는 삶으로 전락한다. 낡은 영사기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자, 한수가 직접 찾아가서 변사로 다시 복귀하기를 간청한다.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레트로 감성과 지역 기반 콘텐츠의 융합

OTT 중심의 콘텐츠 소비가 대세인 지금도 '향수'와 '지역 기반이야기'는 꾸준히 수요가 있다. 곡성이라는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한국의 무성영화 역사와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로 한국형 콘텐츠로서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지닌다.

② 장르적 다양성으로 대중성 확보

드라마, 역사, 휴먼스토리를 결합하여 장르적 폭을 넓히고,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폭넓은 시청자 층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이다.

2024년 장려상

상사화의 연가

작가소개 **박정학**
2025 K-스토리공모전 입선
2023 광주스토리공모전 대상
전자책 출판 7종 17권
웹소설 4개 플랫폼 연재 7편 595화

분야/장르
드라마 / 로맨스

주요 내용
전남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만난 네 명의 주인공이 각자의 상처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극복하며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IP확장 목표
웹툰 제작사와 협업하여 웹툰 제작

로그라인

전남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만난 네 명의 주인공(먼저 떠난 아내를 노래하는 가수, 이혼의 상처를 안은 여성, 첫사랑을 찾아 한국에 온 페루 선원, 학대를 벗어난 캄보디아 이주여성)이 각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마주하며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는 이야기.

줄거리

전남 영광 불갑산은 매년 상사화가 만개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상사화는 아름다움과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로 축제를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준다. 축제 현장은 공연·전시·전통 음식 장터로 가득하고, 각 자의 사연을 가진 네 명의 주인공이 이곳에서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아픔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마주한다.

김현수는 축제 무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부르며 먼저 떠난 아내 유진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음악을 통해 슬픔을 치유하며 유진의 기억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할 힘을 얻는다. 이수진은 이혼의 아픔을 치유하려 불갑사와 백수 해안도로를 찾고, 축제에서 만난 기타 연주자의 노래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고 새 출발을 다짐한다.

루이스는 페루에서 사랑했던 로사를 찾아 한국에 왔다가 영광에서 선원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팬플루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다. 그는 상사화를 보며 로사를 떠올리고, 그 사랑을 편안히 놓아준다. 리나는 결혼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왔지만 남편과 시댁의 학대를 피해 홀로서기를 선택하고, 음식점이 팔린 뒤 한식뷔페 식당으로 옮긴다. 축제에서 캄보디아 음식을 홍보하며 과거의 사랑 소반과의 재회를 꿈꾸게 된다.

네 사람은 저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고통을 겪지만, 그 시간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과정임을 깨닫고,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그들에게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된다.

등장인물 소개

1. 김현수
가난한 섬마을에서 태어나 기타를 통해 음악의 꿈을 키웠다. 아내 유진을 잃은 후, 음악을 통해 그녀의 기억을 간직하고,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2. 이수진
두 번의 이혼과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려 노력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이다.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3. 루이스
페루 출신으로, 로사와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선원 생활을 하며 삶을 이어간다.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팬플루트를 연주하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펼친다.

4. 리나
캄보디아 출신으로, 한국에서 힘든 결혼 생활을 겪고 이혼 후 홀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강한 여성이다. 불갑산 상사화 축제에서 캄보디아 음식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알리며, 과거의 사랑을 떠올리며 희망을 찾는다.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다문화·지역 콘텐츠의 통합적 스토리텔링
- 지역 축제와 다문화 요소의 결합: 전남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라는 실제 지역 축제를 배경으로, 한국인과 페루·캄보디아 출신 이주민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엮어냄
- 로컬 크리에이터 협업: 지역 홍보 콘텐츠(관광 영상, 축제 가이드북 등)로 확장 가능
- 다문화 가족 교육 콘텐츠: 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적 이야기를 담아 사회통합 교육자료로 활용

② 옴니버스 구조로 다양한 포맷 최적화
- 4개의 독립적 에피소드: 각 인물의 이야기가 독립적이면서도 축제에서 교차하는 구조로, 웹드라마 시리즈(각 15-20분, 4부작), 웹툰 연재, 팟캐스트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
- 숏폼 콘텐츠: 각 인물의 핵심 장면(현수의 공연, 수진의 깨달음, 루이스의 팬플루트 연주, 리나의 요리 장면)을 3-5분 영상으로 제작하여 SNS 확산
- 시즌제 확장: 시즌 1(축제에서의 만남과 치유) 후, 시즌 2(이후의 삶과 재회)으로 스토리 연장 가능

③ 관광·문화 산업 연계
- 기념품 제작: 상사화·꽃무릇 디자인의 굿즈(엽서, 에코백, 향수), 캐릭터 상품 개발

2024년 장려상

홍어장수 문선달의 파란만장 일대기

작가소개 **신학수**

전라남도에서 20년째 한의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1회 전라남도 스토리 공모전 장려상

분야/장르

모험물

주요 내용

홍어장사를 하러 나갔다가 3년간 표류하게 된 문선달은 특유의 재치와 언어 감각, 뛰어난 인품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아내와 재회한다.

IP확장 목표

IP 활용 영상화(애니메이션)

로그라인

조선의 홍어장수 문선달은 홍어를 팔러갔다가 풍랑으로 류큐에 표류하고 청나라를 통해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풍랑을 만나 필리핀에 표류하고 만다.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항상 낙관적이며 인간미 넘치는 문선달은 표류 도중 만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무사히 귀환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다.

줄거리

홍어장수 문선달. 그는 우이도(당시에는 나주 관할, 지금은 신안에 속한다)에 사는 젊은 장사꾼으로 홍어를 팔기 위해 배를 탔다가 류큐(오키나와)에 표류하고 만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1년이 걸린다는 말에 다른 사람들은 좌절하지만, 선달은 공짜로 해외에서 견문을 넓힐 기회가 있다고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류큐어를 배우고 지역 특산물을 구해 돌아가려는 등 매우 진취적이고 모험을 즐기는 인물이다.

하지만 류큐에서 청나라로 돌아가는 배마저 표류하고 선달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땅인 필리핀 루손 섬에 또다시 표류하게 된다. 원시부족에게 붙잡혀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핍박했던 청나라 상인 왕타오를 도와 그의 마음을 얻는 선달! 그는 결국 원시부족에게서 탈주하여 마닐라로 갔다가 드디어 청나라로 돌아가는 데 성공한다.
이제 자신과 의형제가 된 왕타오의 도움으로 무사히 북경으로 가게 된 선달은 인삼 돌림병으로 제대로 인삼의 양을 채우지 못해 외교에 큰 곤란을 겪게 된 조선 사신단을 도와 외교에 중요한 공로를 세운다.

조선으로 돌아간 선달은 조선에 표류한 필리핀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공훈으로 세우고 정2품 공명첩을 받아 금의환향하여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과 가족을 만나 조선 최고의 생선 장수가 되겠다는 꿈을 실현하게 된다.

등장인물 소개

1. 문선달(27세 남)
신안군 우이도 출신의 생선 장수. 특히 홍어를 취급하는 인물로 홍어 장사 때문에 배를 탔다가 풍랑으로 표류해 류큐와 필리핀, 청나라를 거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인물. 매사 의욕 넘치고 인정 있으며 적극적으로 장사할 기회를 노리는 인물이다.

2. 박씨(본명 아영 24세 여)
나주 출신으로 문선달과 8년 전 혼인했다. 심지가 굳은 여인이지만 남편이 표류한 지 3년째에도 돌아오지 않자, 십 년 이상 자신을 바라보던 신임 나주 사또 정헌출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물이다.

3. 왕타오(40대 초 남)
중국 남경의 거상으로 청나라와 류큐의 무역을 독점하는 인물이다. 문선달의 흑당을 빼앗으려 했다가 선달 덕에 목숨을 건진다. 이후 선달과 의형제를 맺고 극진히 그를 돕는다.

4. 정헌출(26세 남)
어린 시절 아영을 만나 댕기를 받은 후 박씨를 사모하는 인물. 나주 사또가 된 후 박씨가 과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와 혼인을 추진한다.

5. 김시헌(50대 초 남)
동지사를 이끄는 조선 사신단의 단장. 인삼이 부족해서 외교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문선달의 도움을 받는다.

6. 밍밍(18세 여)
아버지의 귀양길에 동행했다가 부모님을 전염병으로 잃은 후에 장례비용을 치르기 위해 자기 몸을 기루에 파는 여인.

7. 석동출(40대 후 남)
청나라 병부상서로 실권을 장악한 인물이며 밍밍의 남편이 된다.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중심 서사를 활용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
- 조선 후기 해양 활동사, 표류민 외교(류큐·필리핀·청나라), 국가 간 상호 협력, 다문화 감수성 등 작품 서사에서 주로 나타나는 가치를 활용하여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활용이 가능하다.
- 핵심 IP 키워드는 '낙관주의, 다문화, 바다'를 활용하여 학교, 도서관, 박물관 협업을 통한 애니메이션 상영 연계가 가능하다.

② 굿즈·지역상품 연계 확장
- 지역적 색채가 강한 '홍어', '문순득(문선달)' 소재를 활용하여 굿즈·지역상품 연계가 가능하다.

2024년 우수상

파산극장

작가소개 이동윤

2025 BFC IP 스토리 공모전 장려
제1회 전라남도 스토리 공모전 장려
부산장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입선

분야/장르

드라마 / 코미디 / 역사

주요 내용

전국 최고의 로펌 컨설팅 실장이 파산을 앞 둔 건설사의 M&A와 사업 추진을 위해 목포의 100년 넘은 극장 주인 할아버지를 만나 땅을 팔라고 회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 현대사의 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

IP확장 목표

드라마 등 OSMU 및 에듀테인먼트 출판

로그라인

전국 최고의 로펌 컨설팅 실장이 파산을 앞 둔 건설사의 M&A와 사업추진을 위해 목포의 100년 넘는 극장 주인 할아버지를 회유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전라남도 현대사의 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

줄거리

법무법인 선영 광주지부 컨설팅 실장 김수빈은 회생·파산 전문으로 전국 TOP5 실적을 내는 독보적인 인물이다. 동료들은 그녀의 행실을 못마땅해하지만, 매출대부분을 책임지는 탓에 누구도 대놓고 말못한다.
목포 기반 전국 30위권 건설사 금륭건설이 고금리를 못 이겨 파산 직전에 놓여 로펌 선영을 찾는다.
대표 변호사 김승주는 지역 브랜딩 투자사 '비티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인수를 추진하고, 비티인베스트먼트는 목포에 복합레저시설을 지어 강릉·양양·통영처럼 새로운 색을 입히려 한다. 부지 매각 동의서는 대부분 받았지만, 100년 가까이 운영된 목포극장이 걸림돌이고 대표 박세종은 매각에 전혀 관심이 없다.
승주는 목포 출신 수빈에게 2주 이내 세종을 설득하라고 지시하지만, 수빈은 실패 리스크가 크고 현재 실적도 만족한다며 단호히 거절한다.

그러나 수빈은 전세사기를 당한다. 광주 오피스텔에서 나와 자민과 결혼을 앞두고 광주 최고의 아파트 가계약까지 했지만, 전세사기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다. 한편 세종은 함께 목포극장을 운영해 온 명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알게 된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여순사건으로 부모를 잃고 여수에서 도망치듯 목포에 정착했으며, 세종은 여순사건 재심의 증인 요청을 받고도 평소 나서지 않는 성격 때문에 내적 갈등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수빈까지 극장을 팔라고 하니 세종의 부담은 더 커진다.
부지 매각과 회유가 지지부진해지자 금륭건설 대표 이진규는 수하 조폭들을 불러 '물리적 압박'을 지시하고, 조용하던 목포의 갈등은 점점 깊어진다. 과연 수빈은 목표를 이루고 억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 목포극장의 최후는 어떻게 될지, 세종은 여순사건 재심에 참여하게 될지가 남는다.

등장인물 소개

1. 김수빈 (33, 여) : 국내 최고의 회생파산 컨설턴트,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똘똘 뭉친 법무법인 선영 광주지부 컨설팅 실장. 지방대 법학과를 나와 로스쿨 시험에 도전했지만 번번히 낙방, 2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선영에 취업한다. 남들 보다 빠른 눈치와 처세술,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남들 보다 3~4년 빨리 실장으로 승진한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자기 밖에 모르는 속칭 '돈미새'라 다른 직원들에게 눈총을 산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한순간 전락하면서 급전이 필요해졌다. 사기 피해자에게 회생파산 컨설팅을 해주던 수빈은 어디 쪽팔려서 얘기할 수도 없다. 목표는 단 하나! 극장 대표를 설득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다.

2. 박세종 (86, 남) : 40년 간 목포극장을 운영해 온 지역의 '선생님'

40여 년 간 목포극장을 운영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해 선행을 배푸는 등 많은 지역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이는 극장이 장사가 잘 돼서가 아닌, 아내가 남긴 보험금의 일부일 뿐 목포극장은 매년 적자 상태다. 그런 그가 목포극장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닌 영화에 대한 애정과 지역의 소중한 것들을 남기고자 하는 명분 때문이다. 예전부터 목포 내의 알짜배기 땅인 극장 부지 매각을 요청은 많았지만, 이번엔 손녀뻘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다가온다. 남들의 전략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찰나, 수빈이 새로운 수를 들고 온다. 이것이 세종의 마음을 뒤흔든다.

3. 이만용 (34, 남) : 목포시청 7급 주무관

엄청난 영화광이자 14년 전 수빈의 남자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제2의 박찬욱'을 꿈꾸며 한예종에 입학하는 등 자신의 꿈을 위해 한 발 짝 다가갔다. 하지만 데뷔작이 완전히 망하고 차기작 투자도 실패하며 고향인 목포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애정은 포기 못한 채 목포극장에 자주 방문하여 세종과 우정을 나누기도 한다.

4. 서정희 (25, 여) : 법무법인 선영 인턴, 무한 긍정왕

얼마 전 법무법인 선영에 입사해 광주지부로 발령받아 수빈과 함께 일을 한다. 고객 사연은 중요치 않고 '무조건 OK'를 외치는 수빈과 다르게 고객을 위로하는 태도를 지녔다. 이런 정희의 모습을 보고 수빈은 교정을 해주려 한다.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장르적 확장성 및 OSMU:** '회생파산 컨설턴트'라는 트렌디한 전문직 소재와 '목포의 레트로' 감성이 결합된 복합 장르(휴먼/코미디/역사)로, 웹툰 연재 및 OTT 숏폼 드라마, 미니시리즈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로 제작 최적화.

② **공간 IP 사업화 및 지자체 연계:**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와 100년 된 극장이라는 명확한 로케이션을 배경으로 하여, 콘텐츠 방영 후 실제 '스크린 투어리즘(Screen Tourism)' 상품 개발 및 지자체 도시재생 브랜딩 사업과 연계한 오프라인 공간 확장 용이.

③ **에듀테인먼트 및 출판 확장:** '여순사건'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과 치유 과정을 다루고 있어, 웹소설 단행본 출판은 물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나 스핀오프 다큐멘터리 등 진정성 있는 2차 저작물로의 변주 가능.

2025년 전라남도 스토리 공모전 수상작

탐정 홍임, 다산의 딸	우소연
공무원인데,설화속으로외근나왔습니다	변기돈
재란	최형규
소설속최애를위한생존가이드	이하진
한식으로시작하는슬기로운빙의생활	이하영
류, 흘러온 남자	전세영
조선에서온그녀	노홍식

2025년 대상

탐정 홍임, 다산의 딸

작가소개 우소연

한국방송작가협회 소속 드라마 작가
KBS 드라마 〈빛나라 은수〉와 〈오!할매〉 등 집필
KBS, MBC 등 다수의 라디오 및 드라마 구성작가

분야/장르

드라마 / 역사 추리 로맨스

주요 내용

다산 정약용의 서녀, 홍임이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

IP확장 목표

OTT 플랫폼 및 방송사 드라마 시리즈 제작을 핵심
목표로, 다각적인 콘텐츠 IP 확장 모색

로그라인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목민'과 '흠흠'을 강조했으나 서녀 홍임을 외면했던 아버지 정약용.
그에 맞서는 딸 정홍임은 조선 최초 여성 탐정이 되어 명온 공주의 명을 받아 궁궐 살인사건을 파헤친다.
혼란한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최고의 탐정 정약용과 새내기 탐정 정홍임의 숨 막히는 수사 대결을
그린 판타지 탐정 성장기. 홍임은 과연 아버지를 극복하고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을까?

줄거리

조선 최고의 지성 다산 정약용의 서녀 홍임은 '서녀'의 굴레에 재능을 숨기다, 명온 공주 노리개 도난 사건을 해결하며 서동을 만나고 '편견 없는 시선'을 처음 느낀다. 이후 공주 의뢰로 궁중 호초 도난·살인사건에 궁녀로 잠입해 최 나인의 '봉황 문양' 단서로 음모를 좇지만 살인 누명을 쓰고, 종사관 서동의 도움으로 금지된 로맨스 공조가 시작된다. 홍임은 암장굴 비밀을 파헤쳐 다산과 화해하고 대비의 악행을 폭로한다.

사건 후 서동은 자신이 업둥이란 사실을 알고 효순과 혼례를 파기한 뒤 홍임에게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한다. 기녀 연쇄살인 사건에서 홍임은 기녀로 위장 잠입해 호란의 도움으로 범인 병조판서 이병천을 밝혀내지만, 이병천의 생모는 전설의 다모 강분이고 서동은 그녀가 키운 아들이었다. 강분은 아들을 처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 다산에게 탐정으로 인정받은 홍임은 "세상이 정해준 운명 대신,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겠다"라며 서동과 말을 달린다. 차별과 억압을 넘어선 조선 최초 여성 탐정의 통쾌한 성장과 애절한 사랑이 다시 한번 뜨겁게 펼쳐진다.

등장인물 소개

1. 정홍임 (11세 / 18세, 여) – 조선 최초의 여성 탐정

#울트라 T #헤르미온느급 관찰력 #다산의 서녀 #복수심과 애증 #면벽력 여주

다산 정약용과 주막집 여인 진솔 사이에서 태어난 서녀. 조선 사회가 규정한 신분의 벽에 갇히기엔 너무나 찬란한 재능과 강인함을 타고났다. '헤르미온느급' 관찰력으로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으며, '울트라 대문자 T' 성향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천재 탐정이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지적 DNA와 어머니에게 배운 생활력은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엔 아버지 다산에 대한 깊은 애증이 박혀있다. 존경하는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그가 적서차별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과 어머니를 차갑게 외면했을 때, 홍임은 결심했다. "아버지보다 더 유명해져서, 다산 정약용을 흔드는 사람이 되겠다." 이 복수심은 그녀가 위험천만한 사건에 뛰어드는 원동력이 된다. 명온 공주의 의뢰로 호초 도난 사건에 뛰어들어 궁녀로 잠입하고, 기녀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녀로 변신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다. "연애 노, 결혼 노!"를 외치며 훈남 종사관 서동을 돌처럼 대하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는 서동의 헌신에 점차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며 운명적인 사랑에 눈뜨게 된다.

2. 윤서동 (10대 / 20대 초반, 남) – 암행어사 / 한성부 종사관

#하드보일드 순정남 #출생의 비밀 #금지된 로맨스 #스승 vs 연인 #조선제일검

날카로운 눈빛 뒤에 깊은 고독과 따뜻한 심장을 감춘 남자. 몰락한 양반 가문에서 자랐으나, 신분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지녔다.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무예로 한성부 종사관이 되었고, 임금과 다산의 은밀한 명을 수행하는 암행어사로서 이중생활을 한다.

어린 시절 홍임의 천재적인 추리력에 반했고, 성인이 되어 재회한 후에는 그녀의 정의감과 아픔까지 사랑하게 되었다. 스승인 정약용의 적녀 효순과의 혼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홍임을 향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 괴로워한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이 '업둥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자, "나는 이제 약자가 되기로 결심했네. 자네를 더 아끼니까."라며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홍임의 곁을 지키는 가시밭길 로맨스를 선택한다.

스승 다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홍임과 위험한 공조수사를 펼치며, 그녀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몸을 던져 구해내는 조선의 보디가드이자 영혼의 파트너이다.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글로벌 'K-미스터리 사극' 팬덤 창출:** 아름다운 K-사극 영상미에 '셜록 홈즈'식 추리 서사를 결합한 웰메이드 콘텐츠. '다산 정약용'이라는 역사적 무게감과 '천재 소녀 탐정'이라는 트렌디한 캐릭터의 조화는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을 강력한 경쟁력.

② **장기적인 '시즌제 드라마' 세계관 구축:** '호초 도난', '기녀 연쇄살인' 등 독립적이면서도 성장 서사로 연결되는 사건 구조는 시즌제 확장에 최적화. 시즌의 탄생기부터 이후 거대해지는 사건들까지, 장기적인 흥행 시리즈로 발전 가능.

③ **독보적 캐릭터 IP를 활용한 파생 콘텐츠 및 사업:**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활용한 프리퀄/스핀오프 드라마 제작은 물론, 드라마 속 '호초', '탐정 도구', '요선 철릭'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굿즈 및 촬영지 관광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

2025년 우수상

공무원인데, 설화 속으로 외근 나왔습니다

작가소개 변기돈

태조 왕건 스토리 전국 공모전 대상
대한민국임시정부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상

분야/장르

판타지 / 역사

주요 내용

스토리텔링이라면 질색하던 9급 공무원,
오염된 설화 속으로 강제 외근을 나오다!

IP확장 목표

장편 웹소설 연재 / 웹툰 및 영상화
지역 거점형 실감 콘텐츠 개발

로그라인

스토리텔링 업무에 몸서리치던 공무원이 저주받은 도깨비와 함께 오염된 전남 설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 공무원식으로 이야기를 바로잡고 현실로 돌아오려 분투하는 K-오피스 판타지.

줄거리

곡성군청 관광과 5년 차 주무관 마율은 스토리텔링이 싫지만 실적 압박에 주말에 곡성 섬진강 도깨비마을을 찾았다가 푸른 돌멩이를 줍고 '오염된 이야기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 그곳에서 자신을 길달이라 칭하는 도깨비를 만나고, 돌에 봉인된 길달을 풀어 현실로 돌아가려면 '사(邪)가 된 이야기'들을 바로잡아야 함을 알며 기상천외한 외근이 시작된다.

마율과 길달은 전남 곳곳의 뒤틀린 이야기를 겪는다. 순천 왜성 전투에선 임진왜란 왜군 원혼이 오니로 변해 출몰하고, 마율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왜군의 공포를 역이용해 포탄 없는 포성과 북소리만으로 달래는 심리전으로 해결한다. 여수 하멜 표류기에서는 대기근 속 이방인 혐오로 네덜란드 선원들이 괴물 고부리로 변해버리고, 마율은 암행어사 행세로 관료주의 허점을 파고들어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탈출을 돕는다. 나주 임술농민봉기는 경국지색 요부의 원전이 민중의 염원으로 꽃미남 혁명가 양염 장군 서사로 뒤바뀐 이야기로, 마율은 무엇이 올바른 이야기인지 고뇌하며 '이야기의 주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선다.

마지막 실마리를 푼 뒤 벼락을 맞은 마율은 고려 말 어느 강가에서 깨어나고, 길달이 갇힌 도깨비 돌까지 잃어버린다. 한 소년이 그 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 마율은 돌을 되찾기 위해 소년의 독살 제작을 돕다가, 그 소년이 곡성 섬진강 도깨비마을 설화의 주인공이자 자신의 조상 마천목임을 깨닫고 경악한다.

마율은 마천목 설화의 탄생에 관여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소원들을 사용해 독살을 완성해 길달을 봉인에서 해방한다. 현실로 돌아갈 마지막 소원을 앞두고 그는 로또 당첨 욕망 대신, 자신이 바로잡은 이야기들이 사라지지않고 영원히 전해지게 해달라고 빈다. 현실로 돌아온 마율은 더 이상 스토리텔링에 치를 떠는 공무원이 아니다.

등장인물 소개

1. 마율 (30대, 남, 곡성군청 관광과 주무관)

실적 압박과 스토리텔링 타령에 염증을 느끼는 지극히 현실적인 지방직 공무원.
매사에 냉소적이고 실리를 따지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은근히 정이 많은 인물. 판타지 세계에 떨어져서도 내일 출근과 마이너스 통장을 걱정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표본이다.

2. 길달 (나이 미상, 남, 도깨비)

푸른 돌에 백 년 가까이 봉인된 고고하고 자존심 강한 도깨비. 신라 시대 비형랑 설화에 등장했을 정도로 유서 깊은 존재다.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수집했지만, 이를 독점하려다 이야기가 오염되고 자신도 돌에 갇히게 되었다. 입만 열면 마율을 인간이라 얕보며 툴툴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능력을 발휘해 길을 열어주는 츤데레 조력자다.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확장성] 장편 웹소설 연재에 최적화된 '옴니버스식 미션' 구조

• 무한한 에피소드 확장 가능: '민원 접수(사건 발생) → 현장 외근(전남 각지) → 행정력으로 해결(설화 정화)'로 이어지는 구조는 전형적인 퀘스트 형식을 띠고 있음. 현재 완성된 19화 분량 외에도 전라남도의 방대한 설화 데이터를 활용하여 100화 이상의 장편 웹소설로 손쉽게 확장이 가능함.

• 시즌제 운영 용이: 각 지역(곡성, 순천, 여수 등) 별로 독립된 에피소드 구성이 가능하여, 웹소설 연재는 물론 향후 웹툰이나 드라마 시즌제 제작 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

② [대중성] MZ세대 트렌드 '전문직물'과 'K-판타지'의 신선한 결합

• 차별화된 문제 해결 방식: 검이나 마법 같은 흔한 클리셰 대신, '공무원 규정'과 '보고서', '민원 처리 능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설정은 기존 헌터물/레이드물에 피로감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신선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함.

• 현실 밀착형 공감 코드: '실적 압박', '주말 출근' 등 K-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고충을 판타지 세계관에 녹여내어 폭넓은 독자층(2030 직장인 등) 확보에 유리함.

③ [사업성] 웹툰·영상·관광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비주얼 & 공간 요소

• 명확한 비주얼 아이덴티티: '오니(순천)', '고부리(여수)', '도깨비(곡성)' 등 각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크리처와, 이를 상대하는 현대적 공무원의 대비는 웹툰 및 영상화 시 시각적 임팩트가 매우 큼.

• 지자체 연계 비즈니스 모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실존 관광지(섬진강 도깨비마을 등)와 연계하여, 웹소설 완결 후 게임 퀘스트나 성지순례 투어 등 '지역 상생형 2차 콘텐츠'로의 확장이 용이함.

2025년 우수상

재란:再亂

작가소개 최형규

2012 경상북도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 최우수상
2016 네이버, 카카오 SF 웹소설 연재 〈머신〉

분야/장르

사극 첩보 스릴러

주요 내용

다시 찾아온 전란의 위기! 이순신을 죽이려는 집단의 간계와 계략에 맞서 이순신을 살리기 위한 정탁의 고군분투가 펼쳐진다. 결국 이순신은 사형 직전, 백의종군으로 살아남아 명량대첩에서 승리한다.

IP확장 목표

영화 / 드라마 협업 제작

로그라인

배신과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정쟁에서 정탁은 과연 이중 첩자인 요시라의 계략을 저지하고 이순신을 구명하여 조선을 전란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줄거리

소서행장은 조선에 있는 부하 요시라에게 '재란'과 관련한 밀지를 보낸다. 밀지를 확인한 요시라는 '의문의 집단'에 밀지를 도난 당한다. 요시라는 밀지를 훔쳐간 자를 찾는 동시에, 조선 조정에 '일본의 대군이 부산항으로 입항할 것이니 급습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행지중추부사 정탁은 '의문의 집단'인 '대동계'로부터 요시라의 진짜 목적은 '이순신을 바다로 끌어내 죽이는 것' 이라는 첩보를 듣게 된다. 지난 역모의 주역 '대동계'! 이들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조정이 알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역모가 된다. 그러나 이순신을 죽게 둘 수도 없는 일!

정탁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재란의 공포는 전국으로 퍼진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은 선조는 요시라의 제안에 따라 이순신에게 출정을 명령한다. 정탁은 요시라의 계략을 조정에 알리지만 선조는 출정 명령을 거두지 않는다. 정탁은 어쩔 수 없이 이순신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라 좌수영으로 향한다. 그러나 전라좌수영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정탁은 요시라에게 가로 막히게 된다. 출정 시간이 임박해지고, 이순신의 출정을 그저 지켜 볼 수 밖에 없던 그때! 이순신은 이것이 일본의 계략임을 눈치 채고 출정하지 않는다.

정탁 안도하지만 요시라는 왕의 명을 거부한 이순신은 결국 조선 조정의 농간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사라진다. 이순신은 압송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다. 사형이 집행 되기 직전, 정탁이 이순신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담은 신구차 상소문을 올린다. 선조는 사형 대신 이순신에게 백의종군을 명한다. 이순신은 이후 명량대첩에서 승리하게 된다.

등장인물 소개

1. 정탁
이순신이 사형 위기에 처해지자, 〈신구차〉 상소문을 올려 이순신을 구명한다. 대동계의 수장 정여립을 정계에 추천한 인물로, 기축옥사 이후 서인과 조정의 감시 대상이 된다.

2. 요시라
소서행장으로부터 밀지를 받고 가등청정이 부산항으로 대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들어 온다는 사실을 조선 조정에 알리는 인물. 과연 그는 진짜 이중첩자일까?

3. 선조
방계출신왕이다. (적통자가 아닌 왕.) 적통자가 아니라는 것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탓에 늘 왕권 강화를 이유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붕당을 이용한다. 신하들에겐 존경을 백성들에겐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유약한 인물.

4. 이순신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은 요시라의 거짓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출정을 거부한다. 이순신은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다.

5. 만경
정탁의 집에 기거하며 정탁을 치료해주는 맹인 침술사다. 자신은 숨어서 활동하는 의병이라고 정탁에게 실토하지만, 아무래도 대동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 외 윤두수, 김응서, 범녀, 진매, 원균, 상선, 상전, 대동계 조직원 등.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임진왜란 메가 IP 연계 기반 확장 서사

- 명량, 한산, 노량 3부작으로 이어지는 임진왜란 시리즈와 연관된 서브 스토리로써 홍보 가능.
- 기존의 컨텐츠들이 이순신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과 달리, 이순신을 둘러 싼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장르적, 이야기적 기대감 및 신선함 확보.

소설 속 최애를 위한 생존 가이드

작가소개 이하진

제2회 전라남도 스토리 공모전 장려상

분야/장르

아포칼립스 로맨스

주요 내용

외과 수의사 최유나는 소설『종말의 수호자』세계로 넘어가 각성한 능력과 지식으로 최애 진수호의 죽음을 막고 멸망한 세계의 희망을 바꾸려 한다.

IP확장 목표

웹툰 / 드라마/ 게임 각 제작사와 협업 제작

로그라인

소설 속 멸망한 세상에 떨어진 수의사, 최애의 비극적 운명을 바꾸기 위해 그의 유일한 생존 가이드가 되다.

줄거리

외과 전문 수의사 최유나는 아포칼립스 판타지 소설『종말의 수호자』주인공이자 최애인 진수호가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바꾸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세상에서 깨어난 것도 모자라 괴물의 공격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능력을 각성해 살아 남는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유나는 눈앞에 나타난 상태창 속 정보로 자신이 소설『종말의 수호자』속 세상에 왔다는 걸 알게 된다. 심지어 현실로 돌아가는 방법은 소설이 완결돼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애가 죽는 결말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한다.

얼떨결에 소설 속 세상의 유일한 예외가 된 유나는 수호를 비롯한 여러 인물과 연을 맺게 되고, 지식과 능력을 활용해 닥쳐오는 위기를 해결해 나간다.

최애 목숨 하나를 살리려던 작은 결심이 점차 멸망한 세상의 희망을 짊어지는 거대한 운명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

과연 유나는 정해진 운명을 부수고 희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등장인물 소개

1.최유나

예외, 각성, 결심, 운명교란, 생존

현실에서는 외과 전문 수의사로서 생명과 몸의 구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고, 소설『종말의 수호자』세계에 떨어진 뒤에는 괴물의 공격 속에서 능력을 각성해 살아남은 "유일한 예외"가 된다. 그녀는 상태창을 통해 자신이 소설 속에 왔음을 파악하고, 현실로 돌아가려면 소설이 완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알자 결국 최애인 진수호가 죽는 비극을 바꾸겠다고 결심한다. 그 결심은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닥쳐오는 위기를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씩 해결하며 점점 더 큰 운명—멸망한 세상의 희망—을 짊어지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2. 진수호

치유, 희망, 비극, 예정된 죽음, 상징

치유 능력자로서 멸망한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희망" 그 자체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원작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수호는 살아있는 희망이면서도 예정된 비극을 안고 있는 존재이고, 유나가 정해진 결말을 부수려는 이유이자 이야기의 목표점이 된다.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실존 역사 로케이션 기반 몰입형 판타지:** 실제 장소와 역사를 바탕으로 판타지 세계관을 구축해 몰입이 쉬움.

② **에피소드형 구조:**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웹툰이나 숏폼 드라마에 적합함.

③ **게임화 잠재력:** 다양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투, 인물을 비롯한 세계관 설정은 게임 콘텐츠로 활용 가능함.

2025년 장려상

한식으로 시작하는 슬기로운 빙의생활

작가소개 이하영

제2회 전라남도 스토리 공모전 장려상

분야/장르

로맨스 판타지

주요 내용

평범한 빙의녀, 한식으로 제국을 구하고 사랑까지 얻는다.

IP확장 목표

웹툰 / 드라마 제작사와 협업 제작

로그라인

귀족 영애로 빙의한 '나'. 한식이 먹고 싶어 식당을 열었을 뿐인데, 제국 최고 남자 셋이 나를 차지하기 위해 난리를 친다.

줄거리

나, 평범한 26살 직장인 김아리,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제국 최고의 재벌가, 버넷트 가문의 둘째 딸 '에이프릴'이 되어 있었다?! 먹고살기 바쁘던 전생과 달리, 눈 뜨면 다이아 수저 인생. 소원은 단 하나, 일 안 하고 평생 빈둥거리며 사는 것.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미칠 듯이 그리워진 한식을 직접 만든 것이 화근이 되었나. 요리 실력으로 승부를 가리는 버넷트 가문의 후계자 경연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었다. '버넷트'라는 이름을 숨기고, 순수하게 자기 실력만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 후계자 따위 관심 없었지만 대충 체면만 차리자 싶은 마음으로 한식당을 차린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장사가 잘돼도 너무 잘되는 것. 손님을 줄이려고 눈물 쏙 빠지게 맵게 요리했더니, 오히려 더 몰려든다?! 망하는 게 목표였는데 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급기야 매일 죽치고 단골까지 생긴다. 문제는 그 단골 세 명. 정신 나간 진상인 줄 알았던 그들이… 알고 보니 제국에서 가장 탐내는 신랑감들이었다?

토벌을 마치고 돌아온 북부대공은 내 손맛이 아니면 밥을 못 먹겠다며 매달리고, 황태자는 나라를 주겠다며 청혼하고, 차기 교황인 대사제는 내 요리가 성스럽다며 성녀로 추대하려 한다.
근데 가문에서는 나보고 천부적인 재능이라며 후계자가 되라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래!

등장인물 소개

1.에이프릴 버넷트 [김아리]

요리 실력이 처참했던 에이프릴의 몸에 빙의한 26살 전직 직장인. 전남에서 '현지인 맛집'으로 소문난 할머니 손에 자라, 한식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한식을 오래 먹지 못하면 극심한 금단 현상을 느끼는 독특한 체질 덕분에(?) 제국 음식과는 영 맞지 않는다. 한식이 존재하지 않는 제국 땅에서 김치, 된장, 고추장까지 맨손으로 구현해내기 위해 쌀부터 채소, 발효까지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 간다. 본래도 솔직한 성격이었지만, 빙의라는 비현실적인 상황과 다이아 수저 인생이 더해지며 필터 없는 입담과 엉뚱한 행동력이 폭발했다. 겉보기엔 막 나가는 듯 보이지만, 의외로 끈질기고 책임감 있는 생존형 강철 멘탈의 소유자.

2. 테오도르 엘리안 [황태자]

모든 것이 최고였기에 일상이 지루하고 식사조차 감흥 없던 황태자.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작은 식당에서 평생 경험하지 못한 맛을 만나게 된다. "어쩜 이런 맛이…?" 황좌를 바꿔도 아깝지 않을 맛에, 식당 주인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점점 깊어진다.

3. 카일 레이든 [북부대공]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끊임없는 토벌과 영토 수호의 책임감으로 인해, 그는 먹는 것의 즐거움을 잃었다. 모든 음식이 무미건조했고, 생존을 위한 연명으로만 식사를 해왔다. 그러나 제국의 작은 식당에서 우연히 한 요리를 맛본 순간, 미각과 함께 잃어버린 행복까지 되찾는다. 이제 그 요리를 만든 주방사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게 된다.

4. 루미엘 세인트클레어 [차기 교황, 대사제]

모든 행동과 말에 성스러움과 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삶에 지쳐 있었다. 끝없는 책임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조차 치유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던 중, 주인공의 식당에서 매운 음식을 맛보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즐거움을 경험한다. 이것은 신도 해결해주지 못한 치유..!
식당주인은 신이 내린 성녀가 분명했다. 자신도 모르는 집착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사건 중심 에피소드형 구조:** 사건 중심 에피소드형 구조로 웹툰 연재 등에 최적화됨. 주인공의 전생 전환과 제국 귀족 배경, 남주 3인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화려한 궁정과 식당, 요리 장면을 시각적으로 강조해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② **현대극 변환 가능한 드라마 확장성:** 드라마 제작에서는 배경을 현대 도시로 바꾸어 대기업 재벌가 상속녀로 재해석하고, 주인공이 요리를 통해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남주들과의 감정적 긴장과 성장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레시피 연동 체험형 콘텐츠·굿즈화:** 실제 레시피나 요리 과정을 작품 속에서 보여주어 독자나 시청자가 직접 따라 해보거나 체험할 수 있게 한다.

2025년 장려상

류, 흘러온 남자

작가소개 전세영

막손이 두부(비룡소, 1회 역사동화상 수상)
길동, 파란눈의 아저씨와 조선 화약을 만들다
(위즈덤하우스)

분야/장르

역사 로맨스 스릴러

주요 내용

신안선의 생존자로, 기억을 잃은 남자가 귀족행세를 하며 고려 귀족 사회의 권력암투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이야기

IP확장 목표

웹툰 / 드라마 제작사와 협업 제작

로그라인

신안선 침몰로 고려·원 제국의 질서를 뒤엎을 밀서와 반란 자금의 암호가 사라진 가운데, 기억을 잃은 미모의 생존자 '류'가 왕비 부원정의 간자로 귀족 사회에 잠입해 신진 사대부와 호족 윤씨 세력의 암투를 역이용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나라의 운명을 흔드는 정치 스릴러에 휘말린다.

줄거리

고려 말 신안선이 증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군사적 균형을 바꿀 은괴와 비밀 밀서가 사라진다. 유일한 생존자 류는 기억을 잃은 채 어부에게 발견되지만 무예와 예법이 몸에 밴 인물이고, 죽산에서 도적떼에게 습격 당한 왕비 부원정을 구한 일을 계기로 그녀에게 발탁돼 친원파 견제를 위한 '귀족 사회의 말'로 쓰인다.

류는 국제적 교양과 세련된 언행으로 귀족들을 사로잡고 "원나라 거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흘려 환심을 사는 한편, 부원정은 그를 도구로 삼으려다 점차 끌린다. 그사이 권세가 윤기현은 잠녀들을 동원해 해선 보물을 찾게 하며 잠녀 실종과 괴소문이 번지고, 심양의 충선왕은 밀서·은괴의 행방을 쫓으며 위계손은 배후를 엿보고 새 세상을 꿈꾸며 움직인다. 부원정은 류가 해선 생존자이자 밀서의 비밀을 여는 열쇠임을 깨닫고, 류는 기억을 되찾아 역관이던 아버지가 친원파에게 억울하게 죽었고 자신이 은괴·밀서를 운송하던 전달자였으며 윤기현이 그 죽음에 관여했음을 알게 되어 분노한다.

윤기현의 딸 윤아리가 류를 돕는 가운데 잠녀 실종이 윤기현의 범행으로 드러나 그가 구속되고, 위계손은 충선왕을 지키려 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며 부원정은 충선왕과 류 사이에서 갈등하다 끝내 왕비로서 사명을 받아들여 위계손과 함께 밀서를 무마해 충선왕을 보호한다. 그러나 충선왕은 원나라의 눈을 피하려 몽골비를 새 후비로 맞으며 부원정을 떠나보내고, 자유를 얻은 부원정은 스스로의 길을 택한 채 류는 밀서를 불태우고 천주로 돌아가 상단 재건을 결심하며 그녀에게 청혼하고, 류를 짝사랑하던 경애는 순정파 청년과 혼인해 모두가 각자의 길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며 마무리 된다.

등장인물 소개

1. 류 (주인공)

과거를 잃어버린 남자, 25세 정도. 시종무사였으나 기억을 잃어버리고 부원정의 계략대로 원나라 귀족 행세를 하며 귀족들을 염탐함. 절제된 언행과 고급스런 취향, 뛰어난 무예는 그가 귀족임을 보증해줌. 여식들 사이에 원나라 최고 학부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고 류는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남자'. 귀족 여인에게는 '동경의 대상'. 간자들과 기득권세력에게는 '제거 대상'. 기억이 돌아오고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고 인생의 미션을 깨달음.

2.부원정 (부씨 가문 여식, 충선왕의 두번째부인 출신)

충선왕의 셋째 부인이었으나 권력다툼에서 밀려나 친정으로 내려옴. 기품, 지적, 뛰어난 미모에 자유분방한 성격. 처음에는 류를 사교계의 간자역할로 이용하지만 교감이 깊어지고 점점 그의 정체성, 신안선의 비밀을 알게됨. 충선왕을 혐오했지만 왕의 내심과 계획을 알고 조력함.

3.충선왕 (배경 인물)

원나라 황실에 머물며 개혁을 꿈꿨던 왕. 원의 풍속에 심취하고 친원적인 행동을 하지만 뒤로는 원을 전복하려는 한족 세력과 신진사대부와 연합하여 고려를 원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신의 권력도 복원하려 함. 냉철하고 자신을 속이는데 능숙.왕비 부원정을 사랑하지만 왕비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자유롭게 놓아 줌.

4. 위계손 (신진사대부, 한족 반란 세력과 연결된 인물)

한족 반란 세력과 은밀히 연결된 고려의 사대부. 신안선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표면으로 한량같지만 배후에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있음. 류의 효용성을 알고 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음.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OTT 친화적 사극 장르:** K-사극이 OTT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어가는 좋은 타이밍, K-사극 드라마 제작에 적합.

② **AI 기반 대규모 비주얼 구현 용이:** 바다와 거대한 선박 등 AI 이미지 활용을 통한 촬영, 편집 용이.

③ **웹소설·출판 등 IP 확장 가능성:** 역사적 사실과 드라마틱한 사건 구조를 바탕으로, 웹소설 출판 IP로 확장하거나, 방영 이후 스핀오프 등 장기적인 IP 활용 가능.

2025년 장려상

조선에서 온 그녀

작가소개 노홍식

KBS드라마,예능제작국PD·YTN·HBS PD
공모전·지원사업 다수 수상
경북특화시나리오 대상·교육부장관/부총리상)
영화·드라마·방송·웹툰 등 35년 현업 경력.

분야/장르

판타지 가족 드라마 음악

주요 내용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가수 이난영이 현대에 오게 되며, 가족의 화해와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

IP확장 목표

IP 활용 영상화(영화, 드라마) 및 웹툰화

로그라인

1945년 일제강점기 말, 가수 이난영이 탄압 끝에 시간의 균열로 사라져 2025년 목포에 나타나고, 경찰 강준과 마을 청춘들의 도움으로 '조선에서 온 가수'로 주목받는 가운데 그녀의 과거를 숨기려는 정치인 이원중의 공격과 정체 폭로의 소용돌이 속에서 머물 수 없는 운명을 깨닫고 마지막 노래를 남긴 채 빛 속으로 사라진다.

줄거리

1945년 일제강점기 말, 조선의 가수 이난영은 일본군의 감시 속에서도 슬픔과 희망을 노래하다 탄압과 추격 끝에 벼랑에서 하늘의 빛에 휩싸여 시간의 균열로 사라진다. 80년 뒤 2025년 목포 바닷가에서 한복 차림으로 쓰러진 그녀는 경찰 강준에게 발견돼 구조되고, 낯선 현대 문물 속에서 혼란을 겪지만 그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한다.

난영은 목포의 작은 마을에서 담비·황비·해솔 등 청춘들과 인연을 쌓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마을 행사에서 부른 노래 영상이 SNS에서 퍼지며 '조선에서 온 가수'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지역 정치인 이원중은 집안의 숨기고 싶은 과거와 난영의 말이 겹치자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아 여론전을 벌인다.

호기심과 압박이 커지며 난영은 자신이 1945년에서 왔다는 사실을 더는 숨기지 못하고, 강준은 조부의 일제강점기 비극과 난영의 기억이 맞물린다는 점에 주목한다. 공격이 거세질수록 마을 사람들은 난영을 감싸고, 난영은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과 낯섦이 동시에 느껴지는 연결을 경험한다.

정체가 알려지며 SNS·언론·정치권·방송국까지 소용돌이가 커지는 가운데 난영의 몸에 이상이 찾아와 오래 머물 수 없는 운명을 감지한다. 그녀는 인연 속에서 용기와 의미를 얻고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남긴 채, 달빛 바닷가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빛 속으로 사라지며 희미한 노랫소리만 남는다.

등장인물 소개

1. 이난영 (29세 / 조선의 가수)
1945년 조선 최고의 무대에서 노래하던 여인. 탄압과 상실 속에서도 마음의 품위를 잃지 않은 인물로, 불가사의한 빛을 통해 2025년으로 이동한다. 낯선 시대에 흔들리면서도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2. 강준 (33세 / 2025년 경찰)
목포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아가는 경찰.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을 지녔다. 난영의 보호자이자 조력자로서 그녀의 비밀과 삶을 함께 마주하게 된다.

3. 목포할매 김영순 (80세 / 슈퍼 운영)
마을의 중심 같은 존재로, 투박한 말투와 잔소리 뒤에 긴 세월의 외로움과 굳은 마음을 감춘 여성. 난영에게 묘하게 끌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친근함과 불편함이 교차한다.

4. 담비 (27세 / 카페 직원 / 여성)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꿈을 접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타인을 깊이 바라볼 줄 아는 여성. 난영의 노래를 통해 마음속 불씨가 다시 살아나며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변화를 겪는다.

5. 황비 (21세 / 예비 댄서 / 여성)
명랑하고 솔직한 성격의 젊은 여성. 춤을 좋아하지만 생계 때문에 꿈을 숨겨야 했던 인물. 난영을 통해 처음으로 예술의 감동을 전율처럼 경험하고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다.

6. 해솔 (19세 / 디지털 분석에 강한 소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지만, 컴퓨터와 디지털 분석에 유난한 재능을 가진 소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으나 난영의 노래에서 위로를 느끼며 마음을 연다. 강준의 조사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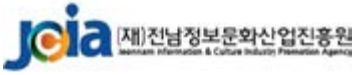
7. 이원중 (50대 / 정치인)
겉으로는 온화하고 세련되지만, 내면에는 철저한 계산과 권력 욕망이 자리 잡은 인물. 난영의 등장으로 과거의 그림자가 흔들리자 그녀를 위협 요소로 판단하고 압박을 시작한다.

8. 나카무라 (과거 일본군 장교 / 회상 인물)
난영의 원래 세계에서 그녀를 탄압했던 상징적 존재. 그의 흔적은 시대를 넘어 현대의 갈등과도 연결되며 전체 서사의 대립축을 형성한다.

IP 활용 주요 포인트

① 다양한 장르와 연계한 영상화 확장성
• 음악·지역·역사로 확장 가능한 상업성을 지녔으며 감정·역사·판타지 결합의 한국형 하이브리드 영화 제작 가능
• 가족·휴먼·역사 결합으로 종편 최적 장르이며 케이블, 지상파 등 방송사와 협업 가치가 높음

② 에피소드형 구조
사건 중심의 에피소드 구조로 웹툰 연재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공간, 캐릭터가 등장하여 비주얼 중심의 세계관 확장 가능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